

## 제 목: 2013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 8월 CBSI 1.9p 상승한 64.0 기록

- 3개월만에 소폭 상승. 단, CBSI 수치 자체는 여전히 저조 -

- 2013년 8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9p 상승한 64.0을 기록함.
  - 이로써 지난 6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2개월 동안 4.0p 하락)했던 CBSI가 3개월만에 다시 소폭 상승함.
  - CBSI가 전월비 소폭 상승함에 따라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그만큼 전월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CBSI 수치 자체가 여전히 기준선(100.0)에 훨씬 못 미친 60선 중반에 불과해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아직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태임.
  - CBSI는 지난 3월~5월 동안 4.1대책 및 추경예산 발표 등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상승했었으나(3개월 동안 11.8p 상승), 6월 이후 4.1대책의 입법화 지연, 7월 초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하락했음.
  - 8월 CBSI가 전월비 소폭 상승한 것은 특별한 건설경기 개선요인이 있었다기 보다는, 지난 2개월 동안 CBSI가 연속 하락한 것에 대한 통계적 반등 효과 때문으로 판단됨<sup>1)</sup>.
- 한편, 2013년 9월 CBSI 전망치는 8월 실적치 대비 5.4p 상승한 69.4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5.4p 상승한 것은 9월에는 그만큼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건설업체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9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올 9월에도 CBSI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편임. 무엇보다 9월 CBSI는 4.1대책 등 건설 관련 대책들의 입법화 추이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을 전망이다.

1) 8.28 전월세 대책은 CBSI 조사 기간을 감안할 때 8월 CBSI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상승해 8월 CBSI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하락했고,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7.2p 상승한 92.9를 기록해 7월의 7.1p 상승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작년 12월(92.9 기록) 이후 8개월만에 다시 90선을 회복함.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1.9p 하락한 48.1을 기록함. 결국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는데, 3개월 동안 지수가 총 18.6p 하락해 중견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매우 악화됨.
  - 중견업체 지수는 2012년 8월에 연이은 중견업체의 법정관리 신청 영향으로 46.2를 기록하며 중소기업 지수(49.1)보다 더 낮게 추락했었는데, 이후에는 중소기업 지수보다 지속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1년만에 다시 중소기업 지수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48.1을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전월과 동일한 모습을 보임.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조달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6.6, 94.9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6.8, 80.9를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3.4, 76.6을 기록해 자금조달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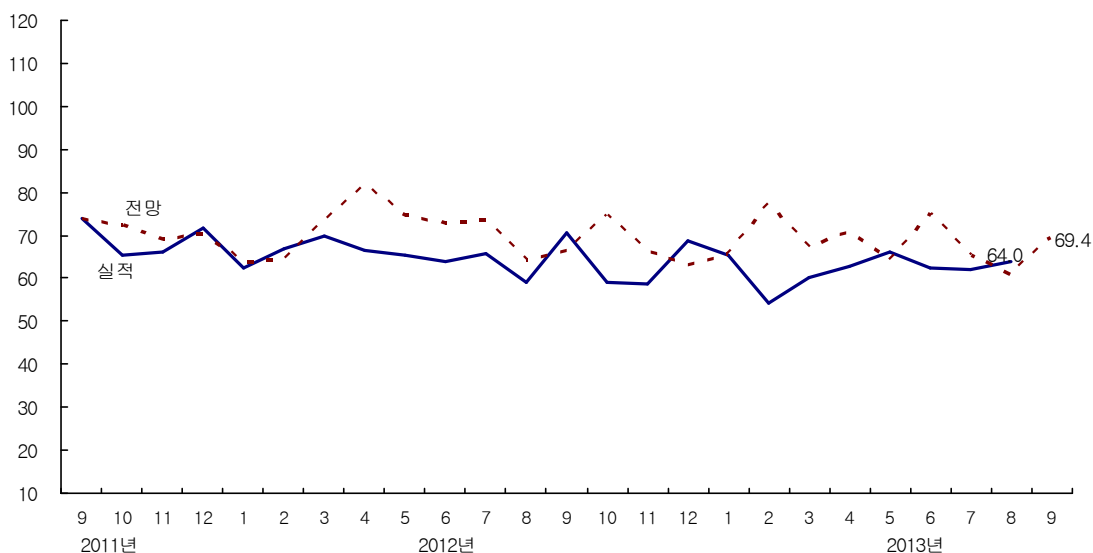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http://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13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8월 CBSI 1.9p 상승한 64.0 기록  
3개월만에 소폭 상승

- 2013년 8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9p 상승한 64.0을 기록함.
- 이로써 지난 6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2개월 동안 4.0p 하락)했던 CBSI가 3개월만에 다시 소폭 상승함.
- CBSI가 전월비 소폭 상승함에 따라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그만큼 전월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CBSI 수치 자체가 여전히 기준선(100.0)에 훨씬 못 미친 60선 중반에 불과해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아직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태임.
- CBSI는 지난 3월~5월 동안 4.1대책 및 추경예산 발표 등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상승했었으나(3개월 동안 11.8p 상승), 6월 이후 4.1대책의 입법화 지연, 7월 초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하락했음.

< 경기종합 BSI 추이 >



- － 8월 CBSI가 전월비 소폭 상승한 것은 특별한 건설경기 개선요인이 있었다기 보다는, 지난 2개월 동안 CBSI가 연속 하락한 것에 대한 통계적 반등 효과 때문으로 판단됨<sup>2)</sup>.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상승해 8월 CBSI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하락했고,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7.2p 상승한 92.9를 기록해 7월의 7.1p 상승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작년 12월(92.9 기록) 이후 8개월만에 다시 90선을 회복함.
  -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1.9p 하락한 48.1을 기록함. 결국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는데, 3개월 동안 지수가 총 18.6p 하락해 중견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매우 악화됨.
  - － 중견업체 지수는 2012년 8월에 연이은 중견업체의 법정관리 신청 영향으로 46.2를 기록하며 중소기업 지수(49.1)보다 더 낮게 추락했었는데, 이후에는 중소기업 지수보다 지속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1년만에 다시 중소기업 지수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48.1을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전월과 동일한 모습을 보임.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2년 10월	11월	12월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58.9	58.7	68.9	65.4	54.3	60.3	62.8	66.1	62.4	62.1	64.0	60.9	69.4
규모 별	대형	76.9	78.6	92.9	85.7	72.7	69.2	71.4	78.6	78.6	85.7	92.9	78.6	92.9
	중견	57.7	55.6	64.0	66.7	48.0	66.7	66.7	66.7	64.3	50.0	48.1	55.6	61.5
	중소	39.3	38.9	46.3	40.0	40.0	42.6	48.1	50.9	41.2	48.1	48.1	46.2	51.0
지역 별	서울	69.9	69.6	79.3	76.2	63.6	64.8	66.9	68.6	71.6	68.7	70.9	67.6	77.3
	지방	43.2	42.5	52.1	49.0	41.8	53.6	58.7	62.2	52.6	51.9	53.3	50.3	57.3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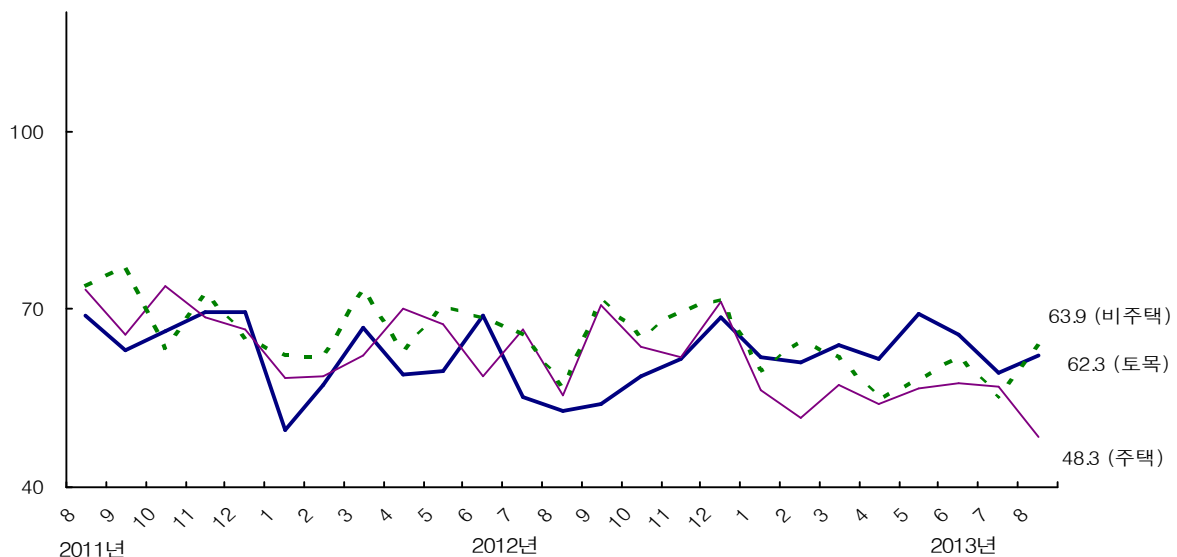
2) 8.28 전월세 대책은 CBSI 조사 기간을 감안할 때 8월 CBSI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3년 9월 CBSI 전망치는 8월 실적치 대비 5.4p 상승한 69.4를 기록함.
  -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5.4p 상승한 것은 9월에는 그만큼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건설업체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 통상 9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올 9월에도 CBSI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편임. 무엇보다 9월 CBSI는 4.1대책 등 건설 관련 대책들의 입법화 추이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을 전망이다.
  
- 지역별로 8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업체가 전월 대비 2.2p 증가한 70.9를, 지방 업체도 전월대비 1.4p 증가한 53.3을 기록함.
  - － 서울업체는 지난 7월 2.9p 감소하였는데, 8월에는 전월보다 2.2p 증가한 70.9를 기록해 한달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함.
  - － 지방업체는 전월 대비 1.4p 증가한 53.3으로 올해 3월 53.6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 비록 전월 대비 증가하였어도 증가폭이 1.0p 수준에 불과하고 여전히 50선 초반에 불과해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 한편, 2013년 9월 전망치의 경우 서울업체는 8월보다 6.4p 증가한 77.3을, 지방업체는 4.0p 상승한 57.3으로 전망해 건설경기 침체 정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함.

## 8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 대비 3.3p 감소한 56.5 기록

- 2013년 8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3.3p 감소한 56.5을 기록, 지난 6월 57.6에 이어 세 달 연속 50선에 머물렀음.
  - － 물량지수는 올 2월 59.6 이후 4월까지 50선에 머물렀음.
  - － 4.1대책 발표 및 공공발주 소폭 증가 영향으로 지난 5월에 64.6로 60선을 기록하였으나, 6월에 다시 7.0p 하락한 57.6를 기록함.
  - － 7월에는 지수가 전월보다 소폭(2.2p) 개선된 59.8을 기록하였으나, 8월에 3.3p 하락한 56.5를 기록,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 통상 8월에는 장마 및 태풍의 영향으로 물량지수가 전월 대비 5p 정도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올해 8월은 7월 지수 수준이 이미 50선에 불과해 하락폭이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토목과 비주택이 전월 대비 상승해 체감하는 물량 침체 정도가 다소 완화된 반면, 주택이 8.5p 하락해 물량 침체 상황이 전월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3.0p 상승한 62.3을 기록, 한달만에 다시 60선을 회복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8.9p 상승한 63.9를 기록, 지난 2월 64.6을 기록한 이후 올 들어 두 번째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8.5p 하락한 48.3을 기록, 지난 2010년 7월 42.7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로 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대형업체는 전월과 동일하지만, 중견과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가 감소해 이들 업체의 물량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78.6을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과 비주택 물량이 각각 전월보다 21.5p, 28.6p 증가해 92.9, 100.0을 기록함. 반면, 주택은 14.3p 감소한 64.3을 기록함.
  - 중견업체의 경우는 지난 7월 전월 대비 14.3p 감소한 50.0을 기록하였는데, 8월에도 또다시 5.6p 하락해 44.4를 기록함. 이는 2008년 11월 37.9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중견업체의 물량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공종별로 모든 공종에서 전월 보다 감소하였는데 토목과 주택이 각각 전월 대비 2.2p, 10.0p 감소하였으며, 비주택도 9.6p 감소함.

####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56.5	78.6	44.4	44.2	63.5	45.7
	전망	63.2	85.7	57.7	43.1	70.9	51.3
토목	실적	62.3	92.9	44.0	47.2	72.9	46.0
	전망	65.0	92.9	58.3	40.0	78.7	44.0
주택	실적	48.3	64.3	40.0	39.1	52.1	42.6
	전망	55.6	64.3	58.3	42.2	59.6	49.2
비주택	실적	63.9	100.0	42.3	46.2	73.9	48.8
	전망	64.8	92.9	56.0	42.0	75.1	49.1

주 : 실적은 2013년 8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9월 예측지수임.

- － 중소기업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4.9p 감소한 44.2를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과 주택이 각각 전월 대비 13.5p, 4.0p 하락한 47.2, 42.2를 각각 기록함. 비주택 또한 6.6p 하락한 42.0을 기록함.
- 지역별로 서울은 전월 대비 1.0p 감소한 63.5를, 지방은 6.9p 감소한 45.7로 지방업체의 물량 침체 정도가 서울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0p 감소한 63.5를 기록함. 비주택이 73.9으로 공종별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토목이 72.9를 기록함. 주택은 공종별로 가장 낮은 52.1를 기록함.
  - －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6.9p 감소한 45.7을 기록, 지난 2012년 10월 45.1 이후 10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비주택이 48.8을 기록하였으며, 토목이 46.0을, 주택이 42.6을 기록, 모든 공종의 물량 지수가 40선에 불과함.
- 2013년 9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8월 실적치보다 6.7p 상승한 6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 통상 8월과 9월은 여름철 비수기가 끝난데 따른 계절적인 요인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임.
  - － 예상하는 상승폭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지수 자체는 60선 초반에 불과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 공종별로는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65.0, 64.8로 60선 중반으로 전망하였음. 다만, 주택은 8월보다는 지수가 개선되어도 55.6으로 50선 중반에 머물며 공종별로는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조달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조달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6.6, 94.9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6.8, 80.9를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3.4, 76.6을 기록해 자금조달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83.4	107.1	74.1	66.0	87.5	77.0
		전망	85.6	107.1	80.0	66.7	90.4	77.5
	자금조달	실적	76.6	100.0	66.7	60.4	80.1	71.3
		전망	81.1	100.0	76.0	64.7	83.9	76.0
인력	수급	실적	96.6	114.3	103.7	67.9	108.4	78.8
		전망	103.7	121.4	111.5	74.0	117.0	83.2
	인건비	실적	86.8	100.0	96.3	60.4	99.0	68.1
		전망	86.8	100.0	96.2	60.8	99.0	68.2
자재	수급	실적	94.9	107.1	92.6	83.0	101.9	84.2
		전망	99.7	107.1	104.0	86.0	108.5	86.2
	비용	실적	80.9	100.0	81.5	57.7	91.8	64.2
		전망	80.4	100.0	80.8	56.9	93.6	60.3

주 : 실적은 2013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8월 예측지수임.